제11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

|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시과 대리 이상섭 |

21세기 항공우주 시대를 대비한 항공우주 정책/전략, 항공우주 및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산 · 학 · 관 · 연 · 군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11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63빌딩에서 개최되었다.

'85년 전자전 전술토의 이래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공군발전 분야는 공군사관학교와 전투발전단에서, 무기체계 분야는 전투발전단에서 담당했다. 또한 최신 무기체계의 정보와 기술교류를 위해 선진 해외업체에서 세미나 및 전시에 참가하여 자사의 제품 및 기술을 소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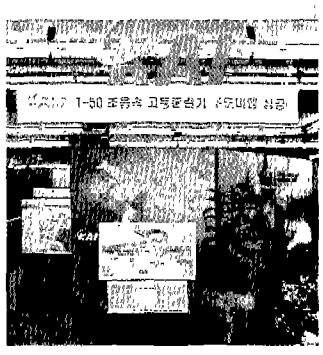
2개 분과로 나누어져 개최된 세미나의 경우 제1분과 공군발전 세미나는 10월 16일 국제회의장과 17일 코스모스홀에서, 제2분과 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는 10월 16일~18일 3층 엘리제홀에서 각각 개최되었다.

전시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, LG이노텍,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업체 및 연구소가 참가하였고 Boeing, Northrop Grumman, GE Aircraft Engines, Goodrich, Textron Systems 등 선진 무기체계 업체 등도 참가하여 최신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.

주요 전시품은 T-50 모형, 저속통제기(XKO-1) 모형 및 항공전자장비 관련 제품, ABX 등 국산화 장비, 초소형 공중발사체, Missile Approach, Sensor Fuxed Weapon 관련 제품 등이 전시되었다.

공군발전 세미나(제1분과)

- 한 · 미 관계의 발전방향과 한국 공군의 역할 (노경수, 서울대학교 교수)
-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의 발전방향 (강성학, 고려대학교 교수)
- 한반도 평화과정과 공군의 역할 (이석수, 국방대학교 교수)
- 21세기 한국군 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(유재갑, 경기대학교 교수)
-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 공군의 과제 (최명상, 한국항공우주협회 국제전시 이사)
- 항공우주군으로 전환을 위한 공군 과제 (구정회, 경북전문대 교수)
- 인공위성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법적 고찰 (김두환,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명예회장)
-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발사시 주변국 공역 통과에 대한 항공/우주법적 고찰(신성환, 공군 대령)
- 미래 전략무기와 새로운 우주법 질서 (신홍균, 한국항공대학교 교수)
- 항공안전 및 보안: 항공테러 저지책으로서의 국제 및 국내법 (Paul S. Dempsey, 캐나다 맥길대 항공우주법연구소장)



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(제2분과)

- 21세기 우주무기체계 구축과 공군의 역할 (장연근, 한국항공대학교 교수)
- 미래 무기체계 응용을 위한 레이저 기술의 발전방향(김재기,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)
- Network-Centric Warfare (General J.G. Lorber, Boeing)
- 우주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개념 (김상준, 경희대학교 교수)
- F-X 기술이전을 이용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방안 (이대열 대령,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)
- 600G/Fuel Tank for F-16 (Shmuel Ehal/Tsuri Minerbi, Israel Military Industries Ltd.)
- 무인기(UAV)의 현황과 군사적 응용 (윤용현 대령, 공군사관학교)
- JSF를 위한 합동 전투력 (Alan Ewing, GE Aircraft Engines)
- 21세기 F-16 개발 (S.J. Freeman, Lockheed Martin)
- 초소형 공중발사 로켓 개발 및 군사적 응용 (변영환, 건국대학교 교수)
- 기상조절 기술개발의 군사적 활용 (남재철, 기상연구소 박사)
- 21세기 767 공중급유기 수송기술 발전 (Thomas Crawford, Boeing)
- Avitronics 미사일 접근 경보 체계 (Gerrie Radloff, Avitronics)
- 개량형 DB-110 주/야 공중 정찰 (Larry Maver, Goodrich)
- 비행훈련용 시뮬레이터 하부시스템의 통합 (윤석준, 세종대학교 교수)
- 미래전에 대비한 공군 정밀유도무기(PGM) 발전방향(강희창, 공군전투발전단 부이사관)
- 전술 정찰을 위한 SAR POD (Vincent Antinoro, Lockheed Martin)
- 미래 전력체계의 발전추세를 고려한 전자방어 기술의 발전동향 (황정섭 중령,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)
- 센서 장착 무기 (Mark Raffesty, Textron Systems)
- 무인항공기 발전추세와 한국형 전략 무인항공기 개발방향(김성배, 한국국방연구원 무기체계연구센터 연구위원)
- 고등훈련기 전기체 정적 설계 제한하중 시험 (심재열외,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)